물을 주고 가꿉시다

書評誌 창간 일년을 돌이켜보며

李起雄
「출판저널」 편집인 · 悅話堂 대표

창간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출판저널 가족'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창간호가 나온 지 어언 일년, 스물네 번의 발행 횟수를 거듭하는 동안, 「출판저널」을 중심으로 독자와 필자와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 · 취재 · 제작 · 광고 · 배포 · 회계 등 여러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이제 한 '가족'이라 불러 부족함이 없을 만큼 따뜻한 우애와 사랑과 의식의 연대감으로 어우러지게 되었읍니다.

척박한 이 땅에 書評文化라는 한그루 나무를 심고 가꿈에 있어 뜻있는 여러 출판인 · 편집자들의 숨은 협력이 없었더라면 그 나무는 이처럼 뿌리내리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뜻있는 분들의 노력이 우리 시대의 수준높은 독자들의 知的 탐구심과, 의식있는 서점인, 문화관리자, 더 나아가 교육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다시 확인하거니와, 이 서평지 발간사업은 한국출판금고가 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간 당시 이미 그 취지를 밝힌 바 있읍니다만, 작년 가을 UCC에의 가입이라든가 새로운 테크놀러지의 개발과 뉴미디어의 출현 등, 복잡한 양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출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서평 및 정보를 다루는 매체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연간 4만종—1억5천만부라는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정보화하는 일, 그리고 기존 매체 특히 일간지의 엄청난 책 광고요금을 출판 전문지의 지면을 통해 해소하는 일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매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출판계의 요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잡지는 이른바 '책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출판의 역사가 이제까지 이룩했던 수준높은 한 典型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창간을 준비할 당시의 우리들의 생각이고 의욕이었읍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그같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일은 막상 힘든 일이었읍니다.

「출판저널」은 우리나라 출판의 수준과 현실을 반영하는 表象이요 거울입니다. 「출판저널」의 내용이나 형식에 부실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출판현실의 모자람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매체의 질을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려야겠읍니다.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듯이 말입니다.

이 매체의 내용이 너무 文藝 분야에, 그것도 다양성이 결여된 채로이거나, 아니면 딱딱한 학술서적만을 다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칠이만큼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出版風土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저희 편집위원들이 때만 되면 한결같이 내뱉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分期에 출간된 책을 모아 점검하게 되는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도와주며 우리 삶의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다양한 책이 어쩌면 이렇듯 빈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매체를 만들고 있는 저희들의 뼈저린 아쉬움입니다.

우리들 다양한 삶의 부족한 틈을 메꾸어 주는 잔잔한 생활도서라든가, 원칙이 잘 적용된 참신하고도 알찬 기획의 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출판저널」의 내용도 다채롭고 건강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매체의 모양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읍니다만, 그것은 저희 편집진이 어떤 확신과 원칙을 가지고 혹 있을지도 모를 모자람은 한가지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해 동안 쫓기면서 만든 스물세 권의 묶음을 들춰 보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새로운 의욕을 일으켜 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정기구독 업무를 맡은 직원이, 요즈음 하루에 일곱 분 정도의 새 정기 구독자를 모신다는 통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었읍니다. 그 '매일 일곱' 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출판저널」이라는 생명체가 쉬는 조용한 숨소리를 연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숨소리와 함께 서두르지 않으면서 날로 발전해가는 「출판저널」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출판저널
1988년 7월20일 제24호
격주간 · 매월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시론 2 창의성 있는 기획출판을 기대한다/柳宗鎬
3 문화행정과 출판정책의 새 방향/徐正宇
초점 4 급변하는출판 환경, 무엇이 달라졌나
특집좌담 6 자율시대의 출판, 반성과 전망
金炳翼/劉載天/李起雄/李種奭/李重漢/全元在
르포 10 지방문화의 주변성 탈피 위해 몸부림
—— 地域출판운동의 현장 ① 釜山
특집 14 창간 1주년에 부치는 독자들의 편지
18 이 여름에 읽을 만한 책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20인의 추천
집필구상 13 장편 「天使를 죽이려고」/李祭夏
저작구상 13 印度 문화·사상의 체계적 이해/이정호
서평 20 「韓國社會經濟史論」— 愼鏞廈
「韓國資本主義史論」— 朴玄埰
21 「현대과학과 윤리」— 朴星來
「玄鎭健小說硏究」— 李在銑
22 「經濟統合論」— 李鍾允
「대사건의 현장」— 金善鶴
23 「한국미술의 현장」— 李 逸
「한국木家具의 전통양식」— 林永周
책과 이미지 24 영상매체시대의 책 ② 사진 속의 책/鄭鎭國
교양논단 26 종교학의 이해를 위한 독서/鄭鎭弘
지금 독서중 28 조셉 매클리스의 「음악의 즐거움」— 방송인 黃仁龍씨
金石範의 「火山島」— 신한투자금융 姜台煥씨
29 미카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 카피라이터 金英愛씨
조창환의 「한국現代詩의 韻律論的연구」— 교사 李在燮씨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
자료 40 「출판저널」 제1호~23호 주요목차 (주제별)
44 신간목록
48 독서퍼즐/정기구독 안내

社 告

「출판저널」은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오는 8월5일자 제25호를 8월20일자로 발행하오니 海諒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행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제작일정을 앞당겨 독자 여러분께서 제때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힘쓰겠읍니다.